

인프라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 변화… “인프라가 곧 삶의 질”

– 지역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인프라 진단, 과거의 틀에 갇힌 이해에서 벗어나야 –

허 윤 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ykhur@cerik.re.kr

연구 배경과 취지

지역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추 산업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인프라 스톡이 적정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아래 중기재정운영계획 등에서 지속적으로 인프라 예산을 삭감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정이 종합적인 분석에 근거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인프라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그동안 부족했고, 예산 효율성 관점의 단선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갈증을 해결코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년간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역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인프라를 진단하면서, 지역민들이 현재의 인프라에 정말 만족하는지, 얼마나 인프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했다. 또한,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성능과 안전이라는 질적 측면의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예산 분석도 미래의 적정성까지 살피는 수준까지 이루어졌다.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는 종합적인 관점으로 인프라를 진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아가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제시하였다. 그러다보니 연구 범위가 넓고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중심이 되었지만, 단독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지역 연구원, 지역과 중앙의 전문가, 학계 등 많은 참여자들의 협업을 통해 연구가 진행된 이유이다. 또한, 지역에서 진행된 다수의 세미나와 자문회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에 보다 적합한 결과로 다듬어졌다. 본 연구가 궁극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시된 프로젝트가 조속히 현실화되고 인프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인프라에 대한 지속 가능한 투자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과거의 틀에 갇혀 인프라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프라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인식해야 하며, 그 시작은 인프라에 대한 지역민들의 변화된 생각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인프라에 대한 지역민의 종합 인식

지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2018년 1월 31일부터 같은 해 3월 7일까지 전국의 8,574명을 대상으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16개 시·도에 각각 500명씩 할당하여 조사하였고, 일부 지역은 추가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전 국민이 아닌 지역민의 인식 수준 확인에 있음에 따라 시·도별 동일 표본을 할당하였다. 설문 문항은 인프라에 대한 종합 인식, 관련성 및 중요성, 현 상황, 정책과 투자, 인프라 시설별 인식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확인하면 인프라는 삶의 질 및 지역 경쟁력과 밀접성이 높고 중요하나, 현재 성능이나 안전도는 이에 비해 낮고, 정책과 투자 상황은 더욱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시민들은 인프라 시설이 삶의 질(3.80점)과 지역 경쟁력(3.56점)에 밀접한 것으로 판단하나, 현재 인프라의 성능(3.17점)과 안전도(3.04점)는 보통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인프라 관련 정책 활동(2.94점)과 투자(2.76점)는 보통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지역민들은 인프라 시설 수준이 지역 경쟁력(3.56점)보다는 주민의 생활과 삶의 질(3.80점)에 더욱 밀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인프라의 중요성을 지역 경쟁력 차원으로 한정하

는 기존의 사고와 최근 지역민들의 인식이 다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최근 들어 삶의 질 향상과 안전에 대한 인프라 수요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모든 지역에서 인프라 시설과 삶의 질의 관련성은 3.7점 이상이며, 지역별 편차도 크지 않았다. 다만, 인프라 수준과 지역 경쟁력과의 관련성은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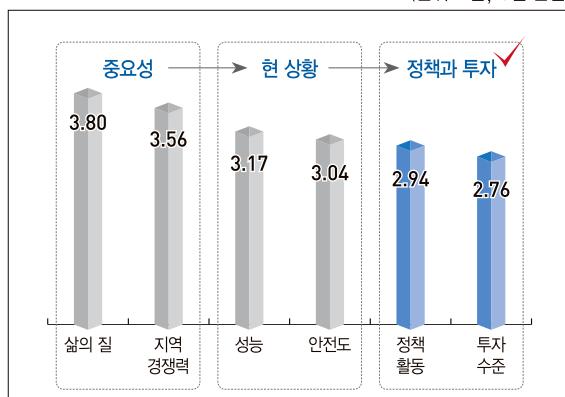
지역별 인프라 격차 심화

셋째, 인프라 시설의 성능(3.17점)보다는 안전(3.04점)에 대한 평가가 낮았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현재의 인프라 성능과 안전에 대해 양호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능 및 안전 관련 평가는 시·도별로 4개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가장 나쁜 수준은 전북과 경북으로 성능과 안전 모두 보통에 미치지 못했다. 다음으로, 성능이나 안전 중 하나라도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전남, 충남, 울산이다. 울산은 광역시 중에서 가장 성능과 안전 수준이 나쁜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균 수준으로 인식되는 지역은 충북, 강원, 경남, 제주로 조사되었다. 성능과 안전 모두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광역시(부산, 대전, 광주, 대구)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국한되었다.

넷째,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는 16개 시·도 모두에서 보통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3점 이하)으로 평가되었고, 투자 수준과 정책 활동은 선형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투자 수준이 양호한 지역에서 정책 활동도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책 활동과 투자 수준이 모두 평균 이하인 지역은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북, 울산, 제주로 조사되었다. 반면, 정책 활동과 투자 수준이 모두 평균 이상인 지역은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경기였고, 광역권에서는 대구, 광주, 대전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황과 유사하게 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 인식 결과

(단위 : 점, 5점 만점)



주 : '삶의 질'의 중요성 문항은 경기 및 인천을 제외한 평가임.

도권과 광역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인천·부산·울산의 시민들은 정책 활동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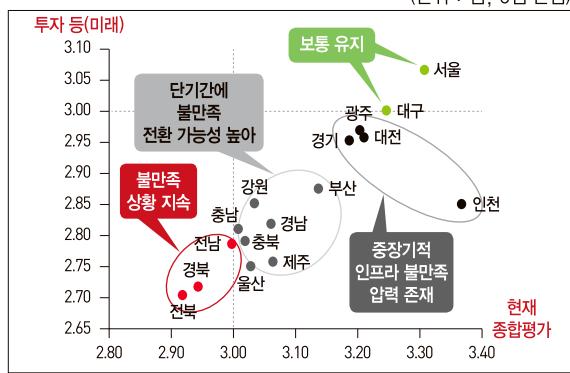
현재의 정책 활동과 투자가 미래 인프라 수준 결정

다섯째, 현재의 투자 상황을 통해 향후 인프라 시설을 가늠하면, 현재와 미래의 인프라 시설이 모두 보통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과 대구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재의 정책 활동과 투자 수준이 미래의 인프라 수준을 결정지을 것이다. 즉, 현재의 정책 활동과 투자 수준이 보통을 유지해야 향후 인프라 수준도 보통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프라 성능과 안전도의 평균을 현재 인프라의 종합 평가로 정의하고, 정책 활동과 투자 수준의 평균은 미래의 인프라 수준으로 규정하였다. 설문 분석 결과, 현재 인프라 종합 평가가 보통(3점)을 상회하고, 정책 및 투자 수준도 보통을 유지하여 앞으로도 보통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 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현재의 인프라 종합 평가는 양호하지만 정책 및 투자 상황이 나빠 향후 인프라 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의 평가가 가장 나쁘고,

인프라 시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종합 평가

(단위 : 점, 5점 만점)



부산은 정책 및 투자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전북, 경북은 현재의 종합 평가도 보통에 미달하는 데다 정책 상황도 안좋아 시민들이 인식하는 성능 및 안전도가 나아질 가능성이 낮아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들 지역에 대한 조속한 인프라 투자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함의한다.

생활 밀착성 인프라 수요 높아져

마지막으로, 시설물별 인식을 살펴보면 시설물의 특징별·지역별로 다양하다. 지하철은 운행 지역이 제한적이긴 하나 삶의 질, 지역 경쟁력, 투자 방향 등 모든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나타냈다.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부문에서는 공원·녹지,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 생활 밀착성 인프라 시설물들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인프라 시설에 대한 변화된 인식 변화를 보여주었다. 또한, 노후 및 안전 부문에서는 산업·물류단지, 재해방지시설 등 안전 관련 시설물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

인프라 개선 효과가 생활에서 체감되어야

앞에서 살펴본 설문 결과는 지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프라의 중요성을 현재의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미래의 인프라 수준이 지역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지역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인프라를 보다 생활에 가깝고, 안전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에서 제시된 프로젝트들이 빠르게 실현되어, 지역민들이 느끼는 인프라 개선 효과가 생활에서 체감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역민의 삶의 질이 풍요로워지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ND]